

올림픽 경제

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장자커우
올림픽 경제성 전망

보고서 설명

본 출판물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이 2018년 3월 발간한 ‘2017 Trilateral Economic Report’ 중 제5장 ‘Olympic Economy’와 제6장 ‘Policy Recommendations’의 일부분을 한중일 3개국어로 번역한 보고서이다.

‘2017 Trilateral Economic Report’는 첸 지안 중국경제개혁협회 부회장 겸 베이징-장자커우 동계올림픽연구소장이 중국 부분을, 사이토 준 국제기독교대학 방문교수 겸 일본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일본 부분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한국 부분을 각각 담당하여 작성한 위탁연구보고서이다.

국가별로 통계 표준이 상이하므로 통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각 저자의 분석은 타 저자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정책 제언 포함)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서문

‘올림픽 경제: 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장자커우 올림픽 경제성 전망’ 보고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2018년 5월 9일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강조한 바와 같이,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장자커우에서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이 한중일 3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올림픽의 전통은 ‘무기를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올림픽 휴전(Olympic truce)’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는 스포츠가 세계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목도해왔습니다. 남북한 선수들이 나란히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 입장한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와 안정을 향한 놀라운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 역시 지난 5월 도쿄에서 2년 6개월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3국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중일은 3국이 연이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여 3국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저자는 첸 지안 중국경제개혁협회 부회장 겸 베이징-장자커우 동계올림픽연구소장, 사이토 준 국제기독교대학 방문교수 겸 일본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올림픽의 경제 영향에 관한 풍부한 정보, 향후 개최될 올림픽의 경제성 전망, 3국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공유해 주신 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사진을 제공해 주신 강원일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도쿄 올림픽과 베이징-장자커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본 보고서가 정책 수립에서 지역 협력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3국 협력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이종현



목차

제I장 올림픽 경제	05
I. 과거 올림픽의 경제 영향	06
1. 중국(첸 지안 부회장)	06
2. 일본(사이토 준 교수)	07
3. 한국(주원 박사, 오준범 선임연구원)	14
II. 향후 개최 예정 올림픽의 경제성 전망	16
1. 중국(첸 지안 부회장)	16
2. 일본(사이토 준 교수)	18
3. 한국(주원 박사, 오준범 선임연구원)	23
제II장 정책 제언	27
I. 중국(첸 지안 부회장)	28
II. 일본(사이토 준 교수)	31
III. 한국(주원 박사, 오준범 선임연구원)	32

표 및 그림

표	
표 I-1 올림픽 개최가 베이징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	07
표 I-2 올림픽의 직간접 비용	09
표 I-3 2022년 동계올림픽 베뉴 투자 세부내역	16
표 I-4 향후 개최 예정 올림픽의 직간접 비용	19

그림	
그림 I-1 도쿄에 대한 투자(회계연도 1956 - 1966년)	10
그림 I-2 홋카이도에 대한 투자(회계연도 1964 - 1974년)	12
그림 I-3 나가노에 대한 투자(회계연도 1989 - 1999년)	14

제장 올림픽 경제

- I. 과거 올림픽의 경제 영향
- II. 향후 개최 예정 올림픽의 경제성 전망



제1장 올림픽 경제

I. 과거 올림픽의 경제 영향

1. 중국(첸 지안 부회장)

과거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베이징은 올림픽 경제의 역할을 최대한 확장하려 노력했다. 일례로 더 많은 도시가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최도시인 베이징 이외에도 산둥성 칭다오에서 요트 경기, 홍콩에서 승마 경기가 개최되었으며, 상하이, 텐진, 랴오닝성 선양, 허베이성 칭황다오에서 축구 예선전이 열렸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한 동 7개 도시는 올림픽 경기 개최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을 촉진한 첫번째 요소는 도시 인프라의 개선이다. 예를 들어 2001년 당시 베이징의 지하철 총 연장은 54km에 불과했고, 승객 수송 분담률은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10%에 그쳤다. 7년간의 올림픽 준비기간 동안 베이징은 철도교통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2008년 7월 베이징의 철도 총 연장은 200km에 이르게 되었다.

두번째 요소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올림픽은 지역 내 건설 및 건축자재, 환경, 정보, 문화, 스포츠, 미디어 및 광고 산업에 사업 기회를 창출했고, 이를 통해 올림픽 개최도시 및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세번째 요소는 지역 경제협력 촉진이다. 올림픽은 개최도시 주변 지역 및 올림픽 비개최지에도 개발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했다.

베이징은 올림픽 준비 시작 단계부터 올림픽 개최 이후에 대두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베이징은 경기장 부지 선정, 계획 수립, 설계 과정에서 처음부터 올림픽 개최 이후 베뉴(venue, 번역자 주-올림픽 경기장이나 건물을 통칭하는 표현) 사용 문제를 고려했다. 임시 베뉴를 확대한 것이 한 예이다. 일부 베뉴는 대학 캠퍼스 내에 지어져, 올림픽 이후에는 대학 내 스포츠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정적 압박과 자원낭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간 투자 및 자금조달 제도를 도입했다. 베이징 올림픽 베뉴 건설에서는 민간 투자가 총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투자에 대한 압력이 크게 줄어들고 민간 기업은 개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 대다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공개경쟁 공동입찰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기업들은 입찰에서 선정된 후 투자와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 규모를 통제하고 올림픽 이후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2001-2008년 7년 간의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베이징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4%에 달했고, 지방재정 수입은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베이징의 1인당 GDP는 2700달러에서 6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베이징 올림픽은 베이징의 전반적 개발 수준을 현격히 향상시키고 도시 개발을 한 차원 높여주었다.

표 1-1 올림픽 개최가 베이징의 GDP 성장에 미친 영향

항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장기 도시계획별 추정치	GDP(억 위안)	2846	3159	3506	3892	4320	4795	5323	5908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반영, %)		9	9	9	9	9	9	9
	1인당 GDP(달러)		3371	3716	4098	4518	4981	5494	6058
올림픽 요인 추가 후 수치	올림픽 투자로 인한 GDP 증분(억 위안)		34	125	271	408	435	416	300
	올림픽 소비로 인한 GDP 증분(억 위안)		12	45	98	151	164	158	247
	GDP(억 위안)	2846	3205	3676	4261	4879	5394	5897	6455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반영, %)		10.6	12.7	13.9	12.5	8.6	7.3	7.5
	등록 인구(만 명)	1125	1133	1141	1149	1156	1164	1172	1179
1인당 GDP(달러)		3421	3896	4486	5103	5603	6086	6619	

자료 출처: Qi LIU (Ed.), Beijing Olympic Economic Research (Beijing Publishing House, 2003 version 1), 8.

2. 일본(사이토 준 교수)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1972년 삿포로동계올림픽,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까지 올림픽을 3번 개최했다. 이 3번의 올림픽은 각기 다른 경제적 환경 속에서 치러졌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일본의 경제 고성장기(1954~1970년)에 일본이 국제통화기금(IMF) 협약 제8조를 수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직후에 개최되었다. 삿포로 동계 올림픽은 외부 환경이 불안정했던 시기(1970~1986년)에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1971년) 후 1차 오일쇼크(1973년)가 발생하기 전에 열렸다. 나가노 올림픽이 개최된 시점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시기로, 1997년에 발발한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다.¹⁾

1) 일본이 개최한 올림픽의 경제적 시사점에 관한 폭넓은 개요는 요시유키 마노와 미쯔비시연구소의 '올림픽 유산: 2020년 도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와 사카모토 카즈미츠의 '올림픽과 경제' 참조.

(i) 1964년 도쿄 올림픽

일본이 처음으로 개최한 올림픽은 1964년 제18회 도쿄 올림픽으로²⁾, 이는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된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1964년 10월 10-24일에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93개국 5152명의 선수가 20개 종목163개 경기에 참가했다.³⁾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다.

(1) 직간접 비용

1964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의하면 인력, 시설, 스포츠 장비 및 기구, 올림픽 선수촌, 교통 등 행정 및 운영 비용은 총 100억엔이었다.

올림픽 경기는 주로 도쿄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주 경기장은 국립경기장(확장), 요요기 국립경기장(신축), 고마자와 올림픽체육관(신축), 일본무도관(신축)이었다. 가나가와 현, 사이타마현, 나가노현에 소재한 시설도 함께 활용되었다. 신규 경기장 건설 및 기존 시설 보수 비용(직접 자본비용)은 총 170억엔이었다.

또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했다. 인프라 투자에는 도카이도 신칸센(고속철도) 건설, 지하철 확장, 수도권고속도로 확장, 상하수도 개선이 포함되었다. 인프라 투자(간접 자본비용)는 총 9610억엔이었다.

총 비용은 9870억엔으로, 회계연도 1964년 명목 GDP의 3.1% 수준이었다(표 1-2 참조).⁴⁾

2) 바로 다음 달(11월 8~13일)에는 제13회 국제스토크맨드빌경기대회(International Stoke Mandeville Wheelchair Games)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동 대회가 올림픽 개최도시에서 열린 것은 역대 두 번째였으며, 현재 동 대회는 제2회 패럴림픽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함께 개최하는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르러서야 공식 규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3)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홈페이지 기준.

4) 플뤼비아, 스투어트, 버지어(Flyvbjerg, Stewart, Budzier, 2016)에 의하면, 총 비용 및 경기·선수당 비용 기준 1964년 도쿄 올림픽의 직접 비용(행정·운영 비용 및 배뉴 건설·보수 비용)은 연구 표본에 포함된 1960-2016년 하계 및 동계 올림픽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Bent Flyvbjerg, Allison Stewart & Alexander Budzier, The Oxford Olympics Study 2016: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Games 참조.

표 1-2 올림픽의 직간접 비용

(단위: 10억엔)

	1964년 도쿄	1972년 삿포로	1998년 나가노
직접 비용	27	17	250
(명목 GDP 비중)	(0.1)	(0.0)	(0.0)
행정 및 운영	10	8	114
배뉴 건설 및 보수	17	9	136
기타	0	0	0
간접 비용	961	202	1291
(명목 GDP 비중)	(3.0)	(0.2)	(0.2)
인프라 건설 및 개선	961	202	1291
합계	987	219	1541
(명목 GDP 비중)	(3.1)	(0.3)	(0.3)
명목 GDP	31567 (회계연도 1964년)	86083 (회계연도 1971년)	533149 (회계연도 1997년)

자료 출처: 1964년 도쿄: 제93회 올림픽피아드 조직위원회(1966)
 1972년 삿포로: 제11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1973)
 1999년 나가노: 제18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1998), 나가노(1999)
 GDP: 내각부(2017a)

참고: 1. 상기 표는 사카모토(2016)가 제시한 표를 확장한 것임.
 2. 모든 수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항목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경제·사회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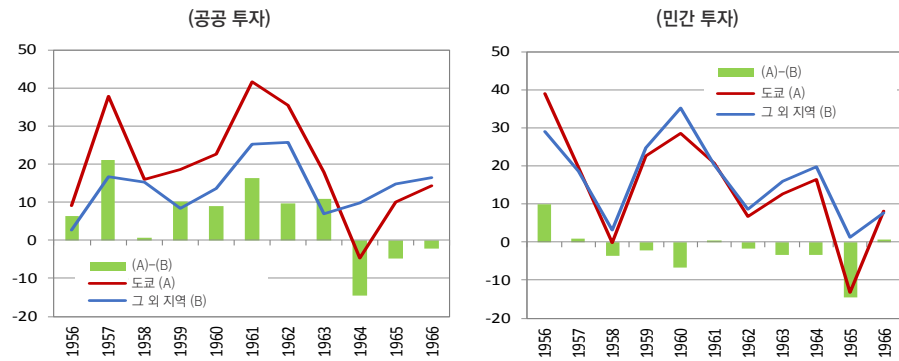
조직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림픽 개최에 따른 사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부문 역시 투자에 참여했다. 일례로 도쿄에는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객 수용을 위해 국제 수준의 호텔이 다수 건설되었다.

올림픽으로 인한 내수 수요 확대가 당시 경제 성장에 일익을 담당했다.

도쿄 올림픽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평균 10%에 이르던 일본 경제의 고성장기(1954~1970년)에 개최되었다. 이 시기의 전반부(1954~1964년)에는 급속한 기업투자 확대가 성장을 견인했다. 올림픽 경기를 위한 추가 지출과 인프라 투자 역시 이 시기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그림 1-1은 도쿄와 그 외 지역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1959년부터 도쿄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속도가 그 외 지역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1959년 5월이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쿄에 대한 민간 투자는 그 외 지역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I-1 도쿄에 대한 투자(회계연도1956-1966년)



자료 출처: 내각부

참고: 1973년 국민계정체계 기준(기준연도= 역년1980년)

또한 올림픽은 일본 국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전반은 국제화의 시기였다.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1960년부터 무역 자유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1963년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를 수락했고 1964년에는 IMF 협정 제8조를 수락했다. 또한 1964년에는 OECD 회원국이 되었다. 해외여행 제한 정책도 같은 해에 철폐되었다.

이렇듯 일본 경제에는 개방의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일본 국민들에게 외국과 외국인은 여전히 먼 존재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림픽은 국민들이 외부세계를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

(3) 경제 영향 고려 시 유의사항

올림픽이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편, 그 영향을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올림픽을 위한 추가 지출이 올림픽 개최 이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히 당시 일본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림픽 지출로 인해 다른 부문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 out)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일본은행은 지출 확대로 인해 한정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지 않도록 긴축 통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올림픽 준비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와 기타 지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올림픽 종료와 함께 사라졌다. 이는 올림픽 이후 1964년과 1965년에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가 각각 크게 감소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I-1 참조).

내수 수요 감소는 1964년 말 일본이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차후에 ‘구조적 불황’이라고 명명된 이 불황은 일본 고성장기에 발생한 가장 심각한 불황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1947년 재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했고, 일본은행은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셋째,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등 일부 지출은 올림픽이 아니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림픽이 완전히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했다기보다는 추후 실행되었을 수 있는 투자를 선행적으로 이행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ii)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일본이 두번째로 개최한 올림픽은 1972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제11회 동계올림픽이었다. 아시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서 2월 3일 개막하여 13일에 폐막했다. 35개 1006명의 선수가 6개 종목 35개 경기에 출전했다.

1972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 운영비, 언론·홍보비, 올림픽 선수촌 비용 등을 포함하는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총 행정 및 운영 비용은 80억엔이었다.

올림픽 베뉴는 삿포로 인근에 마련되었다. 마코마나이 실내 스케이트장, 마코마나이 스피드스케이트장, 츠키사무 실내 스케이트장, 에니와산 활강 경기장, 오후라야마 점프 경기장 등이 신규 건설되었다. 경기장 건설 및 보수 비용은 총 90억엔이었다.

인프라 역시 삿포로 주변에 구축되었다. 일례로 삿포로 시영 지하철과 홋카이도 고속도로가 올림픽 개최 전에 운영 개시되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은 총 2020억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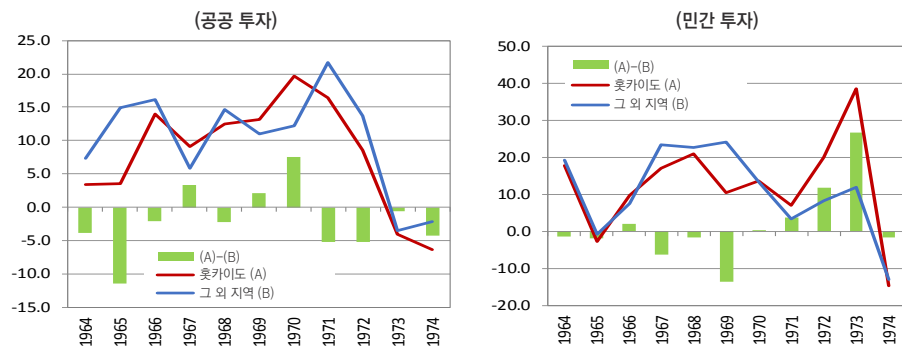
상기 비용의 총합은 190억엔으로, 회계연도 1971년 명목 GDP의 0.3% 수준이었다(표 I-2 참조).⁵⁾

5) 플뤼비아, 스투어트, 버지어(Flyvbjerg, Stewart, Budzier, 2016)에 의하면, 총 비용 및 경기·선수당 비용 기준 1964년 도쿄 올림픽의 직접 비용(행정·운영 비용 및 베뉴 건설·보수 비용)은 연구 표본에 포함된 1960-2016년 하계 및 동계 올림픽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Bent Flyvbjerg, Allison Stewart & Alexander Budzier, The Oxford Olympics Study 2016: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Games 참조.

신규 호텔 건설, 기존 호텔의 객실 추가, 지하 쇼핑 아케이드 신규 건설 등 민간 투자도 이행되었다.

삿포로 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었으므로,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비교하여 전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림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 투자는 1966년부터 소폭 확대되었으나(삿포로가 197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1966년 4월임), 민간 투자는 1971년이 되어서야 가속화되었다.

그림 1-2 홋카이도에 대한 투자(회계연도 1964 - 1974년)



자료 출처: 내각부
참고: 1973년 국민계정체계 기준(기준연도 = 역년1980년)

반면에 이러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영향이 무엇이었던 구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여전히 고정환율 체제 하에 있기는 했지만(당시에는 스미소니언 협정이 적용되었음), 외환보유고가 축적되어 있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통화 공급은 20% 가량 꾸준히 확대되었다.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올림픽 이후 투자가 감소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 감소는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그 이후 실행된 긴축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인해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iii)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일본이 개최한 세 번째 올림픽은 1998년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이었다.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2월 7-22일에 나가노시와 나가노현에 소재한 일부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72개국 2176명의 선수들이 7개 종목 68개 경기에 출전했다. 올림픽에 이어 3월 5-14일

에는 제7회 동계 패럴림픽이 개최되었다. 아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패럴림픽이었다. 31개국 571명의 선수들이 5개 종목 34개 경기에 참가했다. 현재까지 참가 선수 규모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패럴림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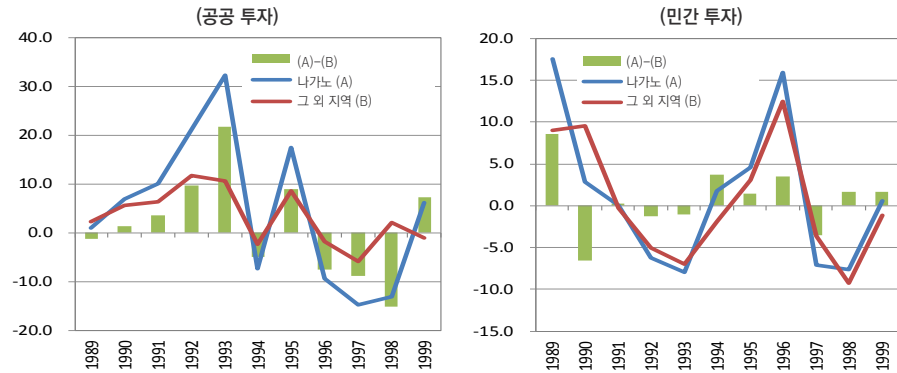
제18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의하면 인건비, 홍보 및 미디어 지원, 장비, 정보통신시스템 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은 1140억엔이었다.

베뉴는 나가노시를 비롯하여 야마노우치(시가 코겐), 하쿠바, 가루이자와, 노자와 온센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되었다. 나가노에 소재한 주 경기장은 M-웨이브(신축), 빅 햇(신축), 화이트링(신축), 미나미 나가노 체육공원(개조)였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보수 비용은 총 1360억엔이었다. 호쿠리쿠 신칸센 정비, 고속도로 및 올림픽 관련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는 인프라 투자 비용은 총 1조2910억엔이었다. 상기 비용의 총합은 1조5410억엔으로, 회계연도 1997년 GDP의 0.3% 수준이었다(표-2 참조).⁶⁾

민간 부문 역시 투자에 참여했다. 그림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1년 이후 공공 투자가 증가했다(나가노가 199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1991년 6월임). 그러나 올림픽 개최 이전인 회계연도 1997년에 민간 투자가 모두 급감했다. 이는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997년 4월 소비세율 인상, 7월 아시아 금융 위기 발발, 11월 일부 주요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불황 때문이기도 했다.⁷⁾

6) 플뤼비아, 스튜어트, 버지어(Flyvbjerg, Stewart, Budzier, 2016)에 의하면, 총 비용 및 경기·선수당 비용 기준 1964년 도쿄 올림픽의 직접 비용(행정·운영 비용 및 베뉴 건설·보수 비용)은 연구 표본에 포함된 1960-2016년 하계 및 동계 올림픽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Bent Flyvbjerg, Allison Stewart & Alexander Budzier, The Oxford Olympics Study 2016: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Games 참조.
7) 미요시와 사사키(2016)는 실제 데이터와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Koyo Miyoshi & Masaru Sasaki, The Long-Term Impacts of the 1998 Nagano Winter Olympic Games in Economic and Labor Market Outcomes 참조.

그림 1-3 나가노에 대한 투자(회계연도 1989 - 1999년)



자료 출처: 내각
참고: 1973년 국민계정체계 기준(기준연도= 역년1990년)

3. 한국(주원 박사, 오준범 선임연구원)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처음으로 개최한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였다. 1981년 제84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서울이 199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일본 나고야와 경쟁한 끝에 총 79표 중 52표를 얻어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2번째, 세계에서는 16번째 올림픽 개최국이 되었다.

서울올림픽은 동서 냉전이 심화되던 시기에 분단 국가에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하여 60개 이상의 자유진영 국가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했다. 공산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된 올림픽이었지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 서독, 일본, 한국 등 67개국이 참가를 거부한 것이다. 개막식에서 IOC 총재는 모스크바 올림픽은 IOC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이며, 이를 정치, 종교, 인종 문제와 관련 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으로 1932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며, 전세계에서 3번째로 올림픽을 2번 개최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소련, 동유럽 국가들, 북한, 쿠바 등 11개국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불참했다(동구권에서는 루마니아가 유일하게 참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40개국이 출전했으며(올림픽 역사상 최대 출전국), 580만명 이상이 경기장을 찾았다.

1981년에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7년간 다양한 시설과 인프라에 투자된 총 비용은 2조3826억원으로 추정된다. 올림픽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1조1084억원이었으며, 기타 관련 시설 투자액은 1조2442억원이었다. 여기에는 경기장 건설, 올림픽 고속도

로 건설, 한강 개발, 김포공항 확장, 도로 유지보수, 인프라 투자가 포함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하면 2조3826억원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4조7504원, 소득유발 효과는 1조8462억원으로 추정된다.

1988년 9월 17일~10월 2일까지 올림픽 경기에 지출된 비용은 총 5890억원이었으며, 총 수입은 8410억원이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은 252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이 흑자액은 정부 출연금 371억원, 선수기자촌 아파트 분양 매출 1315억원, 국민성금 565억원, 올림픽공원 내 조형작품 조성 기부금 9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의 순 이익은 179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첫째, 경기 운영 기간 동안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과 관광에 대한 투자가 수월한 대도시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SOC 투자를 제외하고는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올림픽도 있다.

둘째, 성장하는 도시인 서울에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규모 SOC 투자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투자액은 2조3826억원으로, 당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 증가 및 서울 중심부와 영등포 등 부도심의 과밀 현상을 고려할 때, 동서울 개발과 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서울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브랜드 성장 효과는 엄청났다. 올림픽 개최 이전 한국은 경공업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림픽은 전 세계에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160개국 중에는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공산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II. 향후 개최 예정 올림픽의 경제성 전망

1. 중국(첸 지안 부회장)

2022년 동계올림픽은 베이징과 장자커우가 공동 개최한다. 올림픽 베뉴는 베이징시, 베이징시 양칭현, 장자커우시 총리현에 마련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 3개 지역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징, 양칭, 장자커우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베이징-장자커우 도시간 철도는 곧 건설이 시작된다. 총 연장은 174km이며, 간선을 따라 10개의 철도역이 건설된다. 설계 속도는 시속 350km로, 베이징 북역에서 양칭역까지 20분, 장자커우역까지는 52.5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총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베이징-장자커우 도시간 철도에 총리 지선이 추가된다. 올림픽 선수촌 및 주변 베뉴는 지선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위해 베이징, 양칭, 장자커우의 3개 지역에 경기 베뉴 12개와 비경기 베뉴 13개 등 총 25개 베뉴가 운영될 예정이다. 25개 베뉴 중 10개는 기존 시설이며, 6개는 현재 계획 중이고, 4개는 동계올림픽을 위해 신축되며, 5개는 임시 시설물로 만들어진다. 베이징에는 경기 베뉴 5개와 비경기 베뉴 7개가 마련되며, 양칭현에는 경기 베뉴 2개와 비경기 베뉴 3개가 운영된다. 올림픽 직접 투자는 2가지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는 경기 베뉴와 비경기 베뉴의 건설이다. 이러한 투자는 2014년 화폐가치 기준 총 15.1억 달러, 즉 928.6억 위안에 달한다. 동계올림픽 직접 투자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투자는 주로 경기장 대관, 임시 시설, 베뉴 시범 운영에 사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3 2022년 동계올림픽 베뉴 투자 세부내역

단위: 억 위안

베뉴 유형	베뉴 명칭	위치	현재 상황	종목	공공 투자	민간 투자	합계
경기 베뉴 (56.1)	국립 수상경기센터	베이징	기존	컬링	0.73		0.73
	국립 경기장	베이징	기존	남자 아이스하키	1.25		1.25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베이징	신설	스피드 스케이팅	5.31	6.5	11.81
	수도 경기장	베이징	기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피겨 스케이팅	0.433		0.433
	우커송 경기장	베이징	기존	여자 아이스하키	0.579		0.579

베뉴 유형	베뉴 명칭	위치	현재 상황	종목	공공 투자	민간 투자	합계
경기 베뉴 (56.1)	국립 알파인스키 센터	양칭	신축	알파인 스키	10.04		10.04
	국립 스키 센터	양칭	신축	봅슬레이, 루지	9.92		9.92
	바이애슬론 센터	장자커우	신축	바이애슬론		4.39	4.39
	노르딕 센터 크로스 컨트리 스키 경기장	장자커우	신축	크로스컨트리 스키		5.83	5.83
	노르딕 센터 스키장	장자커우	신축	스키 플라잉 힐		3.72	3.72
	윤딩 설원 A	장자커우	기존	프리스타일 스키/스노보드 스키		5.17	5.17
	윤딩 설원 B	장자커우	기존	프리스타일 스키/스노보드 스키		2.23	2.23
연습 경기장 (3.00)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수도경기장	베이징	기존		2.61		2.61
	수도 스케이팅 링크	베이징	기존		0.33		0.33
	수도경기장 훈련장	베이징	기존		0.06		0.06
올림픽 선수촌 (32.20)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		신축			18.21	18.21
	양칭 올림픽 선수촌		신축			6.92	6.92
	장자커우 올림픽 선수촌		신축			7.07	7.07
메인 프레스 센터	중국 국립컨벤션센터	베이징	기존		0.572		0.572
기타 비경기 베뉴	국립 경기장	베이징	기존		0.973		0.973
합계					32.81	60.06	92.86

자료 출처: Chen Jian (Ed.), Beijing-Zhangjiakou Winter Olympics Development Report 2016, (Chinese Culture and History Press, December 2016, first edition), 216.

동계올림픽이 베이징과 장자커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올림픽 개최 이전, 다양한 베뉴와 지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지역의 GDP 성장이 점차 가속화된다. (2)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 운영을 통해 GDP 성장이 최고조에 달한다. (3) 2022년 이후, 올림픽을 통한 베이징과 장자커우 스키 산업의 장기적 성장이 차차 결실을 맺게 된다.

2. 일본(사이토 준 교수)

(i) 2020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도쿄는 2020년 제32회 올림픽을 개최한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네번째 올림픽으로, 도쿄는 일본에서 올림픽을 2번 개최하는 첫번째 도시가 된다. 7월 24일 개막하여 8월 9일 폐막하는 도쿄 올림픽에는 33개 종목 339개 경기가 열리며, 최대 11090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⁸⁾ 올림픽 폐막 후 8월 25일-9월 6일에 개최될 제16회 패럴림픽에서는 22개 종목 537개 경기가 열리고, 최대 4400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⁹⁾

(1) 직간접 비용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최근 예산 예측에 의하면, 행정 및 운영 비용은 약 8200억이 될 전망이다.

베뉴는 도쿄와 인근 현 및 후쿠시마에서 마련된다. 도쿄 내 베뉴는 올림픽 스타디움(재건축), 아리아케 경기장(신축), 올림픽 체조경기장(신축)이며, 이들 베뉴의 건설 및 보수 비용은 68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비하여 1000-2000억엔의 준비금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행된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는 광역고속도로 보수, 신규 지하철 노선 건설, 기존 노선 연장, 나리타 및 하네다 국제공항 확장이 포함된다. 한 민간 싱크탱크는 인프라 투자 총액을 2-3조엔으로 추정한다.

상기 투자 총액은 3조6000-4조8000억엔으로, 회계연도 2020년 기준 명목 GDP의 0.6-0.8%에 해당한다(표 1-4 참조).¹⁰⁾ 이는 한편으로는 1972년 삿포로 및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보다 큰 금액이다. 반면에 현재로서는 하계올림픽이었지만 패럴림픽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1964년 도쿄 동계올림픽 대비 훨씬 적은 투자액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최종 투자 금액은 애초의 예산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8) 2017년 6월 9일 IOC가 결정한 내용이다.

9) 2017년 9월 4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결정한 내용이다.

10) 회계연도 2020년 예측은 내각부 '중장기 경제 및 공공재정 예측'의 경제활성화 논거에서 발췌했다.

표 1-4 향후 개최 예정 올림픽의 직간접 비용

(단위: 10억엔)

	2020년 도쿄	2026년 삿포로
직접 비용	1600-1800	433-457
(명목 GDP 비중)	(0.3)	(0.1)
행정 및 운영	820	246-249
베뉴 건설 및 보수	680	184-210
기타	100-300	109
간접 비용	2000-3000	해당 없음
(명목 GDP 비중)	(0.3-0.5)	해당 없음
인프라 건설 및 개선	2000-3000	해당 없음
합계	3600-4800	해당 없음
(명목 GDP 비중)	(0.6-0.8)	해당 없음
명목 GDP	607600 (회계연도 2020년)	733200 (회계연도 2025년)

자료 출처: 2020년 도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2016), 도쿄도 정부(2017), 미즈호종합연구소(2017)
2026년 삿포로: 삿포로(2016a): 삿포로(2016c)
GDP: 내각부 (2017b)

참고: 1. 상기 표는 사카모토(2016)가 제시한 표를 확장한 것임.
2. 모든 수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항목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유발지출

일부 기관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투자액을 추정했다. 일례로 일본은행은 호텔 건설 및 보수 관련 프로젝트 총 투자를 8000억엔으로, 도시재생 총 투자를 4조8000억엔으로 전망한다. 총 투자액은 5-6조엔에 이른다.¹¹⁾

일부 연구소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따라 발생하여 일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지출을 추정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수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증가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 이래로 급증했다. 최근 예측에 의하면 2020년까지 3300-3600만에 이를 전망이다.¹²⁾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객 수가 더 증가하면, 정부 목표치인 4000만명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11) 이에 앞서 도시전략연구소(2014)는 호텔 건설 비용을 3950억엔, 도시재생 비용을 4500억엔으로 예측했다. 도시전략연구소의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의 경제 영향' 참조. 미즈호종합연구소(2017)는 최근 2017년 이후 발생할 도시재생 비용을 약 3조5600억엔으로 추정했다. 이 비용에는 2020년 이후 완료 예정인 프로젝트가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 일본은행(2015)은 2020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가 33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미즈호종합연구소(2017)는 3600만으로 전망한다.

관광객 수 증가뿐 아니라 관광객 1인당 지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지출여력은 관광객 출신 국가의 소득 성장 및 엔화와 해당 국가의 환율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일본의 관광상품 및 관광지의 질과 안전 역시 관광객이 예산을 어디에 지출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공조하여 관광객들이 일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올림픽이 창출하는 새로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투자의 확대이다. 호텔 건설 및 보수와 도시 정비 외에도, 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이 개최되므로 공공·교통 시설을 장애인들이 보다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 민간 싱크탱크는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입에 따라 투자액이 약 8천억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3) 거시경제 영향

상기 내용을 볼 때, 2020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일본의 거시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지출의 거시경제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첫째, 총생산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도쿄도 정부의 추정치는 이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도쿄도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약 2조엔의 간접지출 증가(경기 참가자, 관람객 및 전세계 방송국 지출 증가, 직접 관리비용, 경기장 건설 및 보수 비용 포함)는 도쿄 내에서 3.4조엔, 전국적으로는 5.2조엔의 추가 생산을 유발할 것이다. 올림픽 유산 관련 지출이 12.2조엔(올림픽 이후의 베뉴 활용과 관련된 지출 및 스포츠 활동과 관광 확대 포함) 증가함에 따라 도쿄 내에서 17조엔, 전국적으로 27.1조엔의 추가 생산이 유발될 전망이다.

둘째, GDP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본은행의 추정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일본은행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증가(관광객 수 및 1인당 지출 기준)와 민간 부문의 투자 증가(베뉴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해 2015-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이 0.2-0.3%p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8년 실질 GDP가 1% 상승하는 것과 같다.

(4) 경제 영향 고려 시 유의사항

그러나 경제 영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장기금리 인상으로 인한 구축효과는 우려사항이 아니다. '수익률 곡선 조절(Yield Curve Control)'을 통한 양적질적완화(QQE)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장기금리는 낮은 수준(현재 정책 공약에 의하면 제로 금리)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통화 정책 하에서는 경제 활동이 증가해도 민간 투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노동력 확보 경쟁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축효과이다. 노동시장은 이미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1장 내용 참조). 올림픽을 위한 건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른 사업은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올림픽의 긍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올림픽 이후 경제 활동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정책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5) 사회적 영향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화된 세계에 더욱 긴밀하게 통합될 수 있다. 일본은 특히 해외직접투자(FDI)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측면에서 외적 세계화에 비해 내적 세계화가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외국인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만나고 이해하며,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내적 세계화를 촉진하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성 평등은 여전히 일본 정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올림픽 경기에 여성 선수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은 양성평등 상황을 개선하도록 국민들을 고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장애인이 평등한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와 사회를 만들 필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청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다.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시점의 일본의 청년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비중 뿐 아니라 절대 수에 있어서도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보다 적다. 2020년 전체 인구는 1억2500만 명으로 1964년의 9700만명 대비 훨씬 많지만, 0-14세 인구는(1500만명, 전체 인구의 12%) 1964년(2500만명, 전체 인구의 26%) 대비

훨씬 적을 전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 인구의 절대 수와 비중은 1964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1964년의 600만명보다 훨씬 많은 3600만명(전체 인구의 29%)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에게 올림픽은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롤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년층에게 올림픽은 스포츠와 건강 유지의 중요성에 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년층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자극을 받는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또한 이에 따라 노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사회 보장제도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

(ii) 2026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삿포로는 2026년 두번째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¹³⁾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삿포로는 일본에서 동계 올림픽을 2번 개최하는 첫번째 도시가 된다. 삿포로시와 홋카이도 내 기타 도시 및 마을과 협력하여 경기를 치를 전망이다.

(1) 직접 비용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은 2월 6-22일에 개최되며, 7개 종목98개 경기가 치러진다. 이후 3월 6-15일에는 패럴림픽이 5개 종목, 72개 경기로 개최된다.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의 모델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삿포로시에 의하면 행정 및 운영 비용(유치활동 비용 포함)은 2460-2490억엔으로 예상되며, 배뉴 및 시설 준비 비용(직접 자본비용)은 1840-21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배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총 비용은 4330-4570억엔이다(표 1-4). 이는 GDP의 0.1%에 해당하며, GDP 비중 관점에서는 1972년 삿포로 올림픽과 1998년 나가노 올림픽보다 행정 및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셈이다.¹⁴⁾

13) 삿포로시는 2017년 11월 일본올림픽위원회(JOC)와 합의 하에, 2026년 동계올림픽 유치 제안서 제출에 앞서 먼저 IOC와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림픽 개최지는 2019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4) 회계연도 2020년 예측은 내각부(2017a)의 경제활성화 논거에서 발췌했다.

(2) 경제 영향

홋카이도의 주도인 삿포로의 1인당 소득은 홋카이도 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회계연도 2014년 삿포로 시민 계정(Citizens' Account)에 의하면, 삿포로 시민 1인당 소득은 286.8만엔으로 홋카이도 평균보다 2% 높다. 이는 다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삿포로의 인구는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삿포로의 소득 수준은 점차 타 지역보다 낮아지고 있다. 회계연도 2014년에는 국가 평균 대비 약 9%나 낮았다. 또한 중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삿포로는 경제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삿포로가 스키 리조트로서의 명성을 지닌 만큼, 올림픽을 시설을 보수 및 정비하고 전세계에 삿포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뽐내는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다. 삿포로가 외국인 관광객과 일본 내 타 지역에서 국내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삿포로 뿐 아니라 홋카이도 전체가 그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삿포로시는 관광객 수는 총 1100만명, 선수, 관계자, 관광객의 소비지출은 총 51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삿포로시가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여 추정한 거시경제 영향에 의하면, 직접 비용과 소비지출에 따른 총 수요 확대로 인해 삿포로에는 6450억엔, 국가 전체로는 1조1890억엔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생산 확대에 따라 삿포로에 52000개, 국가 전체로는 8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삿포로는 올림픽이 지역 성장에 지속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한국 (주원 박사, 오준범 선임연구원)

2018년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올림픽이다. 평창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최종 투표에서 밀려났다. 캐나다 밴쿠버가 3표 차로 평창을 앞서면서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도 또 한번 고배를 마셨다(러시아 소치가 개최지로 결정됨). 그 후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한국은 국제 스포츠 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6번째 국가가 된다. 하계 및 동계 올림픽, FIFA 월드컵,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주최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4개의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¹⁵⁾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국제대회 유치는 경제적 관점에서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후 올림픽 성공의 기준을 논하도록 한다.

(i)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¹⁶⁾

국제스포츠 행사의 경제 효과는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직접적 효과는 투자와 소비지출 효과를 포함한다. 투자 효과는 경기장, 교통, 숙박 등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총 투자액을 의미한다. 소비지출 효과는 국내외 관광객의 지출과 올림픽 개최 비용이다. 간접적 효과는 행사 종료 후 개최지가 유명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적 관광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포함한다.

직접적 효과 추정에서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자한 총 금액은 약 7조2255억원으로 간주된다.¹⁷⁾ 4조7425억원을 도로와 철도에 투자했고 숙박 시설에 7710억원, 베뉴와 경기장에 5402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와 같이,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여 각 부문의 생산유발 계수를 고려하면 총 투자의 경제 효과(생산유발 금액)은 약 16.4조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지출의 경제 효과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 국내 관광객의 소비지출, 올림픽 경기 비용 지출로 구분된다.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39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이다. 한국 내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약1600달러)과 평균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총 소비지출은 7213억원, 생산유발 금액은 약1조2543억원으로 전망된다.

올림픽 기간 중 평창을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 수는 약 2백만명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평년 대비 30% 증가를 의미한다. 국내 관광객의 평균 지출을 고려할 때(1인당 약119515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내 관광객의 소비지출은 2390억원, 생산유발 금액은 4155억원으로 예측된다.

15) 2018년 기준 국제스포츠 대회 그랜드 슬램 달성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이며, 2021년에는 미국도 포함될 예정이다.

16) 본 장은 Joo & Park(2011)의 논문 초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HRI 11-17*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7)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출한 금액은 총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초기 예산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약 1.9조원을 투자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 금액은 약 3조75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총 소비지출에 대한 경제 효과(생산유발 금액)은 약4조7453억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간접적 효과 측면에서는 평창이 전세계적인 겨울 여행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추가적인 관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1000만명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림픽 개최 후 10년간 1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출은 향후 10년간 18.46조원, 경제 효과는 32.2조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제스포츠 경기를 개최하면 평창이나 강원도 등 지역 브랜드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브랜드 역시 제고되므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와 경제적 성과가 개선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를 1% 높이기 위해 1억 달러를 지출하므로, 한국의 상위 100대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를 1% 높이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인지도와 상위 100대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1% 향상된다고 가정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100억 달러(11.6조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직접적 경제 효과는 약 21.1조원, 간접적 효과는 43.8조원, 총 경제 효과는 64.9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며 동계올림픽을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적 통합과 경제 성장을 위해 올림픽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동계올림픽의 성공 기준¹⁸⁾

앞 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고려했다. 본 장은 특히 솔트레이크시티 및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올림픽 준비에서 폐막까지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동계올림픽의 성공 기준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동계올림픽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개최 도시가 경기 개최 이후 비용 부담에 직면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개최국의 인구 및 경제 중심지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또한 동계스포츠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경기 이후 유지보수 비용이 문제가 된다.

18) 본 장은 Joo & Park(2011)의 논문 초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기준’, *HRI 14-08*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올림픽 전후와 올림픽 기간 중의 비용, 수입 및 경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올림픽 개최 이전에 시설 및 인프라 투자가 실행된다. 그 결과 경기장, 숙박시설, 미디어촌이 건설되며, 교통, 전기 등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실행된다. 투자자금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민간 부문에서 조달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국채와 지방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효과는 생산, 부가가치, 시설 및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포함한다. 경기 기간 동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는 공식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 운영비, 개막식 및 폐막식 비용을 포함한다. 수입은 기업의 후원, 티켓 매출, 상표권 수입, IOC의 자금 지원, 방송 중계권 수입으로 구성된다. 경제 효과는 생산, 부가가치, 관광객 소비지출과 운영 지출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를 포함한다. 경기 이후 비용은 올림픽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성되며, 수입은 지역 주민과 선수들의 시설 이용 수입을 포함한다. 경제 효과는 개최지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지출이 발생하면서 창출된 생산 및 부가가치를 포함한다.

동계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 비용을 통제해야 한다.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경우, 계획 변경의 내용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일반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기 이후 활용이 불투명한 고정 시설에 대한 건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겨울에만 치러진다. 따라서 과거 동계올림픽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경기 이후 고정 시설 운영비였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은 철거하기 쉽게 건설되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임대 공간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기 이후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올림픽 개최 전에는 시설관리 기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최 후에는 수익성 있는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올림픽 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인구 규모, 소득 수준, 연령 분포를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로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관광 인프라와 상품 개발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의 인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관광자원을 구축 및 연구하고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제II장

정책 제언

- I. 중국(첸 지안 부회장)
- II. 일본(사이토 준 교수)
- III. 한국(주원 박사, 오준범 선임연구원)



제II장 정책 제언

I. 중국(첸 지안 부회장)

(1) 올림픽 경제 협력 강화

한중일은 3국간 올림픽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1)빙설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중국의 동계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베이징과 장자커우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스포츠산업 벨트, 클러스터 또는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빙설산업 확대를 위해 일본과 한국은 빙설 피트니스 및 레저, 유명 스포츠 경기 쇼, 빙설관광 등 중국 빙설산업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의 스키 장비 제조업체를 다수 설립하여 빙설산업 거점, 빙설관광 산업과 함께 완전한 산업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한중일의 빙설산업을 미국 및 유럽과 견줄만한 핵심 산업으로 점차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하나는 중국 북부에서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인 장자커우이다. 한중일 3국은 풍력 및 태양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국제 '저탄소 올림픽 지역'을 공동 구축할 수 있다. (2)인프라 협력을 촉진한다. 인프라 발전 측면에서 한중일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가격과 인력 관점에서 경쟁우위가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엔지니어링과 기술에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양국을 인프라 건설 및 중국의 동계올림픽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역시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국도 자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올림픽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3)올림픽 시장 개발을 위한 협력을 촉진한다. 각국의 국내 기업을 스폰서십 프로그램과 영업권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각국 조직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국가적 협력을 통해 각국의 티켓 판매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경기를 관람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2) 3국간 문화교류 및 협력 강화와 올림픽 개최 경험 공유

한중일 3국은 다음과 같은 올림픽 개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1)올림픽의 저점 효과(trough effect)이다. 올림픽 이후 지속불가능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3국이 올림픽 및 도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2)올림픽 이후 배뉴 활용이다. 유희 배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뉴 설계시 올림픽 기간 중의 기능적 요구사항 뿐 아니라 올림픽 이후의 기능적 포지셔닝 및 종합적 활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배뉴 설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올림픽 이후 다양한 활용을 위해 건설 단계에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올림픽 개최 경험의 공유이다. 일본은 3국 중 유일하게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모두 개최한 국가이며, 해당 경기 조직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에 공유할 가치가 있는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에 공유할 가치가 충분한 정보이다.

(3) 한중일 올림픽도시연맹 및 올림픽도시발전기금 설립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아시아 올림픽 개최국을 위한 선례를 구축했다. 향후 4년간 한중일 3국은 3번의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즉, 한중일의 더 많은 도시들이 올림픽 도시가 되는 것이다.

제 29회 올림픽 개최지는 베이징이었지만, 그 외 6개 도시가 역시 올림픽에 참가했다. 요트 경기는 칭다오에서 개최되었고, 승마 경기는 홍콩에서, 축구 경기는 친황다오, 상하이, 셴양, 텐진에서 열렸다. 또한 난징은 2014년 청소년올림픽을 개최했고, 베이징과 장자커우는 2022년 동계올림픽을 공동 개최한다. 즉, 중국의 9개 도시가 올림픽 개최도시의 영광을 안게 된다. 그 중 베이징, 텐진, 상하이, 중국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있는 도시이다.

한국의 올림픽 도시는 서울(1988)과 강릉, 평창(2018)이고, 일본의 올림픽 도시는 도쿄, 삿포로(1972), 나가노(1998)이다. 이에 12개 도시와 3국의 수도가 참여하는 한중일 3국 올림픽 도시연맹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연맹 회원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한중일 올림픽도시연맹 사무국을 설립하고, 각국의 수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동 연맹은 소지역 발전 연맹으로서(회원국의 일부 도시만이 참여하므로) 발전 및 협력의 유연성과 가능성이 크다. 동 연맹은 올림픽 유산을 이어받고 한중일 올림픽도시의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올림픽도시연맹을 기반으로 올림픽도시발전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동 기금은 3국 올림픽 개최도시의 문화 교류, 인프라 건설, 스포츠 산업 발전, 올림픽 정신 확산에 사용될 것이다.

(4) 3국간 ICT 교류협력 강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5가지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는 ICT 분야에서 획기적 혁신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IT(정보기술)와 CT(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ICT 프레임워크는 통신 산업과 전자정보 산업, 인터넷, 미디어 산업을 통합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K-ICT 2020'을 위한 5개년 전략 계획은 투자를 확대를 통해 ICT를 혁신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본도 ICT 산업에서 발전을 보였으며, 중국 역시 일부 영역에서 획기적 혁신을 이루어냈다. 2013-2018년 중국의 ICT 산업 성장률은 연 13.3%로 추정된다. 한국은 ICT 혁신을 통해 기술 기반 올림픽의 진전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의 기술 혁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중일은 ICT 부문에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여 3국의 ICT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 협업을 이끌어 내고, 동북아가 전세계 ICT 발전과 보조를 맞추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전세계 ICT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3국간 관광발전 촉진

한중일 3국은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 국가들이다. 3국은 또한 강력한 성장 잠재력과 전세계 관광 시장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관광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3국간 관광협력 촉진과 관광객 3천만명 달성의 기회로 삼는 것은 분명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일례로, 통일된 한중일 관광 경로를 설계하여 3국 이외의 관광객이 해당 경로를 거쳐 3국을 방문하도록 할 수 있다. 한중일 청년 관광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교류 계획을 수립하며, 청년층의 정기적 교류 방문을 조직하여 3국 관광의 예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관광객 경로를 개발하여 관광시장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

2016년 12월 중국과 한국은 관용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상호 비자면제를 공식 실행했다. 일본은 아직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국경이 여행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한중일 3국은 비자면제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다.

3국은 주요 중심 도시간 상호연결성을 강화하고 항공 노선 및 항공편을 확대하며, 더 많은 2-3선 도시가 항공 및 항해 노선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고, 기업들이 관광 전세기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3국을 보다 직접적인 경로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II. 일본(사이트 준 교수)

짧은 기간 동안 한중일 3국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는 것은 3국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상호협력을 면밀하게 계획 및 조직함으로써 3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협력은 3국 협력 강화의 명확하고 중요한 시작점이 되며, 이는 3가지 채널을 통해 실행 가능하다.

첫째, 3국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실행하는 한가지 확실한 방법은 3국 올림픽 조직위의 인적 교류이다. 이전 올림픽의 조직위 구성원들이 차기 올림픽의 조직위에 참가하여 그들의 보유한 정보와 경험을 전해줄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차기 올림픽 조직위 구성원들이 이전 올림픽에 합류하여, 그로부터 얻은 정보와 경험을 추후 차기 올림픽 조직위에 도입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3국의 올림픽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둘째, 지역 및 민간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스포츠 협력을 실행할 수 있다. 개최 도시간 스포츠 행사 협력을 점차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에는 특정 집단에서 협력을 시작하더라도, 추후에는 타 집단도 협력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일례로 1993년부터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2017년 8월 제25회 대회는 일본 이바라기현에서 11개 종목으로 개최되었다. 대회 참가자는 한중일의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생 선수들이었다.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는 3국간 스포츠 행사 역시 개최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한중일 친선육상경기대회가 열리며, 올해는 제4회 대회가 중국 닝보에서 7개 경기로 개최된다.

이러한 대회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3국의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대회들을 더욱 개선하여, 모든 연령층과 장애인, 보다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협력을 보건 등 스포츠와 긴밀하게 관련된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임박했거나 곧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중일 3국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건 협력은 상호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국의 보건 상황에 대한 정보와 노인 인구가 직면한 보건 문제 해결의 경험을 공유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3국의 노인 인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3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III. 한국(주원 박사, 오준범 선임연구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연이어 개최되므로, 한중일 3국은 상호 지리적 인접성을 심분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3국간 정기적 스포츠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입안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스포츠 정책에 관해 소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훈련, 자원 조달, 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3국의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향후 올림픽 기간에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3국중 한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나머지 2개 국가에 대해서는 관광비자 발급을 면제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 국가에서 국제스포츠 행사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 시설, 선수촌, 미디어촌 등의 시설을 3국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발하게 활용해야 한다. 일부 시설은 문화, 공연 및 교육 시설로 전환하여, 스포츠, 문화, 예술을 위한 종합적 공간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회 종료 후 3국간에 크고 작은 지역 및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3국간 공동 스포츠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 지역과 연결된 관광지를 개발 및 활성화하여 올림픽 베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인프라와 시설을 3국에 분산하여 건설함으로써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대회 폐막 이후에는 3국이 해당 시설을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통해 스포츠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사진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개최지 발표에 기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대표단



개최지 선정 발표에 환호하는 도쿄 대표단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개최지 선정 발표에 기뻐하는 베이징 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500m 남자 경기에 앞서 차민규(한국)와 가오 퉁유(중국) 선수가 몸을 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 출전한 우다징(중국)과 황대헌(한국) 선수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경기에 출전한 김은정(한국)과 후지사(일본) 선수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중국 휠체어 금메달을 목에 건 컬링 팀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 알파인스키 남자 슈퍼대회전 경기에 출전한 미사와 히라쿠 선수(일본)



평창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7.5km 좌식 경기에 출전한 신의현
(한국) 선수



평창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에어리얼 경기에
출전한 장신(중국) 선수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에 출전한
하뉴 유즈루(일본) 선수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경기에 출전한 임효준(한국) 선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2022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이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 중국

“2017 Analysis on China–Japan–ROK Trade Relations (2017中日韩三国之间贸易关系及结构分析)”. April 21, 2017. <http://www.kanzhun.com/zhichang/lunwen/548194.html>

“Balance of Japan’s Inward FDI Increased in the Past 4 Consecutive Years(海外对日本直接投资余额连续4年增加)”. Nikkei 日经中文网. May 25, 2015. <http://cn.nikkei.com/politicsaeconomy/investtrade/14515–20150525.html>

Chen, Jian, ed. Beijing–Zhangjiakou Winter Olympic Development Report 2016. 1st edition. Beijing: China Culture and History Press, December 2016.

Chen, Jian. “The Olympic Economy: China’s Innovation and Development”. People’s Daily. July 25, 2008: 10.

CJK FTA Negotiation Resumed After 9 Months, Financial and Communication Areas Will Be Discussed (中日韩时隔九个月重启自贸谈判, 将启动金融通信等领域磋商)”. 经济参考报. January 10, 2017.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7–01/10/c_129438982.htm

Financial Network (Beijing). “Predicting steady economic growth prospective and continued conversion of old and new driving force—Report of confidence survey of China’s top 100 economists in Q3 2017”. November 1, 2017.

“Japan’s Investment to China Decreased by 16.3% from January to Jun (1-6月日本对华投资减少16.3%)e”. Nikkei 日经中文网. July 22, 2015. <http://cn.nikkei.com/politicsaeconomy/investtrade/15334–20150722.html>

Jiang Yanshu, Xu Ling.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Service Trade and Goods Trade in China – Japan Bilateral Trade”. Modern Business. December 23, 2015.

Jinsematou. Accessed October 19, 2017, <http://www.jinsematou.com>.

Leadership Paper. 2017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Macro–control Policies. Vol. 10. (2017).

Liu, Qi ed. Beijing Olympics Economic Research. 1st edition. Beijing: Beijing Press, 2003.

LV, Kejian. “Sino–Japa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Retrospect of 2015 and Prospect of 2016 (中日经贸关系: 2015回顾与2016展望)”. 中文导报. June 8, 2016. <http://www.rbzwd.com/hrxw/2016/06–08/9774.shtml>

Northeast Asia academic journal of 2016. “Yao–Haitian, Japan and South Korea’s MC industry bilateral trade comparison and competition”.

SIK Task Force Report. Evolution, Pathways and Prospects of FTAAP Building (上海国际问题研究系列课题报告: 亚太自贸区建设的演进、实现路径和前景). October 2015. <http://www.sis.org.cn/shgjw201512107417/uploadfile/2015/1125/20151125065246116.pdf>

Surging News, Color. “Interpreting China’s macroeconomic data in the third quarter: Steady economic growth, reversal of the trend of multiple–year slowdown”. October 19, 2017.

“Trade Deficit with Japan Reached Nearly 200 Billion USD In The Past Eight Years (8年对日贸易逆差近2000亿美元)”. 法制晚报. May 25, 2010. <http://finance.sina.com.cn/world/yzjj/20100525/16577999962.shtml>

Wang, Zhile. “Data based–view of China’s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Japan and ROK”.

Xu, Bia. “Escalating of SAARD: Domestic industry opportunities after the injured trade”. Ministry of Commerce Tianfeng Securities Institute. NetEase Financial.

Xu, Chang Wen. “China’s big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invested in factories in Japan for the first time”. The International Network. July 11, 2017.

YU, Fei. “Average Tariffs on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s 1/4 of the World’s–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中国农产品平均关税水平仅为世界水平的1/4 粮食进出口现状分析)”. November 2014. 前瞻网. <https://www.qianzhan.com/qzdata/detail/149/141113–adea2604.html>

YUAN Ruiling, TIAN Zhihong. “Research on Korea’s Agriculture Product Tariff under Its FTAs (自由贸易协定背景下的韩国农产品关税问题研究)”. World Agriculture (世界农业). March 2014.

2. 일본

Bank of Japan. “2020–Nen Tokyo Olympic No Keizai Kouka” [“(Economic Impacts of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Bank of Japan Reports & Research Papers, (2015) (in Japanese).

Cabinet Office. Chu–Choki No Keizai Zaisei Ni Kansuru Shisan [Medium– and Long–Term Projections of the Economy and Public Finance], (2017a) (in Japanese).

Cabinet Office. Keizai Zaisei Houkoku [Annual Report on the Japanese Economy and Public Finance], (2017b) (in Japanese).

Flyvbjerg, Bent, Allison Stewart, and Alexander Budzier, “The Oxford Olympics Study 2016: Cost and Cost Overrun as the Games.” Working Paper July 2016, Said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Oxford, (2016).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Projection for Japan: 2015–2065, (2017).

Institute of Urban Strategies. “2020–Nen Tokyo Olinpikku Paralinpikku Kaisai Ni Tomonau Wagakuni Eno Keizai Hakyu Kouka [Economic Impacts of Hosting 2020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he Mori Memorial Foundation, (2014) (in Japane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Pacific, Preparing for Choppy Seas, Washington D.C., 2017.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ESP Forecast: Monthly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in Japan, November 2017.

Mano, Yoshiyuki and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Olinpikku Regashii: 2020–Nen Tokyo Wo Kou Kaeru [Olympic Legacy: How it is going to change Tokyo in 2020], Tokyo: Popular Publishing, 2013 (in Japanese).

Miyoshi, Koyo, and Masaru Sasaki. “The Long–Term Impacts of the 1998 Nagano Winter Olympic Games in Economic and Labor Market Outcomes.”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vol. 11 iss. 1 (2016): 70–90.

Mizuho Research Institute. “2020–Nen Tokyo Olinpikku Paralinpikku No Keizai Kouka” [“(Economic Impacts of 2020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One Think–Tank Report (2017) (in Japanese).

Nagano, City of. Dai 18 Kai Olinpikku Touki Kyougi Taikai Nagano–Shi Houkokusho [Report by the City of Nagano on the XVIII Olympic Winter Games]. Nagano: 1999.

Nagan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Nagano Olinpikku Ga Motarashita Mono” [“(What Nagano Olympic Games brought)”], Hokuriku No Shiza vol. 4 (1999) (in Japanes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Games of the XVIII Olympiad. The Games of the XVIII Olympiad, Tokyo 1964: The Official Report of the Organizing Committee. Tokyo: 1966.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XI Olympic Winter Games, Sapporo 1972. The XI Olympic Winter Games Sapporo 1972: Official Report. Sapporo: 1973.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XVIII Olympic Winter Games, Nagano 1998. The XVIII Olympic Winter Games: Official Report. Nagano: 1998.

Sakamoto, Kazumitsu. “Olinpikku To Keizai” [“(Olympics and the Economy)”], Reference, National Diet Library, (2016) (in Japanese).

Sapporo, City of. “Sapporo Touki Olinpikku Paralinpikku: Kaisai Gaiyou Keikaku Ni Yoru Keizai Hakyuu Kouka Shisan” [“(Projec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apporo Olympics and Paralympic Winter Games based on the Outline of the Proposal)”], (2016) (in Japanese)

Sapporo, City of. 2026–Nen Hokkaido Sapporo Olinpikku Paralinpikku Touki Kyougi Taikai: Kaisai Teiansho [Proposal to Host the 2026 Hokkaido Sapporo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2016) (in Japanese).

Sapporo, City of. 2026–Nen Hokkaido Sapporo Olinpikku Paralinpikku Touki Kyougi Taikai: Kaisai Teiansho Shiryohen [Reference Materials for the Proposal to Host the 2026 Hokkaido Sapporo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2016) (in Japanes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okyo 2020 Taikai Kaisai Ni Tomonau Keizai Hakyuu Kouka [“(Economic Impacts of Hosting Tokyo 2020 Games)”], (2017) (in Japanese).

Tokyo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Soshiki linkai Yosan To Sonota Keihi, Zentaizou (Barjon 1)” [“(Overview of the Organising Committee’s Budget and Other Costs (version 1)”)], (2016) (in Japanes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2017).

3. 한국

Agha et al, "Considering legacy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The legacy of the Olympic Games", Sport Management Review, Vol. 15 (2012).

Banmossy and Stephens, "Utah Image and Awareness: The Post-Olympics European Study", working papers, David Eccles School of Business; Utah. Division of Travel Development (2003).

Bondonio and Campaniello, "Torino 2006: An Organizational and Economic Overview", OEMERO working paper n. 1 (2006).

Chappelet, "From Lake Placid to Salt Lake City: The Challenging Growth of the Olympic Winter Games Since 1980",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 2 iss. 3 (2002).

Flyvbjerg and Stewart, "Olympic Proportions: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Olympics 1960-2012", Sai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s (2012).

IOC, Olympic Games: Legacies and Impacts (2013).

IOC, Factsheet the Olympic Winter Games (2013).

IOC, Report of the IOC 2014 Evaluation Commission (2014).

IOC, Report of the IOC 2018 Evaluation Commission (2018).

Nagan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Nagano Olinpikku Ga Motarashita Mono" ["What Nagano Olympic Games brought"] Hokuriku No Shiza vol. 4 (1999) (in Japanese).

Pilipenko, The Sochi 2014 Winter Olympics –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ways to improve the project efficiency, Pan-European Institute (2013)

PWC, Global Summary of the Impact of the 2010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on British Columbia and Canada 2003 to 2010 (2011).

Ralston et al, "What are the Economic Impacts on a Nation Hosing the Olympics", USSR Working Paper (2008).

Zimbalist, Andrew, "Is It Worth It? Hosting the Olympic Games and Other Mega Sporting Events is an Honor Many Countries Aspire to – but why? ", Finance and Development (2010).

저자약력



첸 지안(CHEN Jian)

중국경제개혁협회(CSER) 부회장이자 베이징개혁발전연구학회(前 베이징올림픽 경제연구학회) 최고전문가, 베이징-장자커우 동계올림픽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안휘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이토 준(SAITO Jun)

국제기독교대학교 경제경영학과 방문교수이자 일본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다. 2007-2012년에 일본 정부 내각부 경제연구국장으로 근무했다.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MPhil in Economics).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1년부터 현대경제연구원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2013년부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했다.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개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TCS는 한중일 3국 정부가 서명·비준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공식 설립되었다.

TCS는 3국의 협력과 공동번영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TCS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3국간 협의체를 지원하는 것이며, 새로 설립된 협의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TCS는 다수의 프로젝트와 행사를 조직하여 3국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모색하며 3국 협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올림픽 경제: 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장자커우 올림픽 경제성 전망

발행일자	2018년 11월
발행인	이종현 TCS 사무총장
감수자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 한 메이 사무차장 차오 웬 경제부장
편집자	김연수 경제연구원 사카이 마리나 경제연구원 카마카미 에리 경제연구원
주소	03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전화번호	+82-2-733-4700
홈페이지	www.tcs-asia.org
이메일	economic@tcs-asia.org
디자인	보명 커뮤니케이션